



‘월가의 구세주’ 헨리 폴슨
‘헨리 왕’.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가 금융위기로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빗댄 말이다. 일부에선 7000억달러 구제금융을 이끌어낸 그를 ‘월가의 구세주’로 부르기도 한다. **Page 10**



가을 핸드백, 클래식을 입다
올가을 패션계를 흔드는 ‘클래식’의 바람이 핸드백도 예외가 아니다. 1980년대의 경제하고 발달한 감성이 반영된 핸드백 패션을 알아보자. **Page 16**



33년 추억 찾은 ‘심은경’
한국명 심은경,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가 젊은 시절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영어를 가르쳤던 충남 예산중학교를 33년만에 다시 찾기로 화제다. **Page 28**

씨.씨.에스 스킨타운 골드 크림 **참조화장품**
본품은 전화 **080-8383-000**으로 주문하세요.
대표전화 (02)769-5000 www.asiatoday.co.kr

2008년 9월 30일 화요일 **주간** 제242호 60판

서울 : 구름 많음, 최저 14~ 최고 24℃

대표전화 (02)769-5000 www.asiatoday.co.kr

ASIA TODAY

아시아투데이

Inside

이르면 내년부터 식품집단지자체
벨라민사태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야가 식품집단지자체 추진에 의욕을 보이면서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7면**
청계천 ‘복원 3년’ 그 명암은...
지난 2005년 10월 회색빛 시멘트와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화려하게 부활한 청계천. 세계에서 하천 복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청계천의 과정을 알아본다. **12면**
美 구제금융, 효과 발휘할까
미국 정부가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풀기로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이 구제금융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14면**
은행 대출금리 ‘7년래 최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에 영향을 줘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대출평균 금리가 연 7.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면**

부동산 특집 22~23면



엄마는 뽀빠지 ‘행복한 증명’
KBS 주말극 ‘엄마가 뽀빠지’가 66회를 마지막으로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31면**

한국인 빅리거들 내년은 ‘맑음’



29면

심판대 오른 현대車 ‘가부장 경영’

무리한 해외공장 증설 ... 세계적 경기 둔화로 가동률 ‘뚝’
MK식 인사로 CEO ‘파리목숨’ ... 美법인 3년간 4명 교체

골드만삭스 “재무안전성 의문 ... 악화 가능성 커”

세계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밀어붙이기식’ 경영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저돌 경영으로 몸집을 불려왔으나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그동안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함께 정몽구 회장의 예측 불가능한 인사와 모호한 브랜드 전략도 글로벌경영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연말 현대차 체코 노소비체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에 속속 들어설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경기둔화로 중국 등 기존 해외공장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차 판매가 더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현대·기아차는 이들 국가에 현지공장을 세웠거나 세우고 있는 중이다. 러시아의 경우 현대차 뿐 아니라 GM, 닛산, 스즈키, 미쓰비시, 푸조 등이 완성차공장을 건설중이다.

인사에서도 잦은 임원 교체로 비난을 샀다. 미국에서 기아차는 3년만에 4번 경영자를 바꿨다. 지난 3월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재능 있는 인재들을 현대·기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현황

지역	생산개시	생산규모
미국 앨라배마	2005년	30만대
중국 베이징	2002년	60만대
체코 노소비체	2008년	30만대
인도 첸나이	1998년	60만대
터키 이스미트	1997년	10만대
러시아 모스크바	2011년	10만대
브라질 상파울루	2011년	10만대
중국 연청	2002년	43만대
솔로몬카이 제도	2006년	30만대
미국 조지아	2009년	30만대

* 생산규모 2011년 기준

아차가 쫓아내고 있으며 남아있는 임원들조차도 기업문화에 숨막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대·기아차는 마케팅에서도 ‘가격경쟁력’을 내던지며 위기를 맞고 있다. 품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브랜드 가치가 아직 높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올려 미·중에서 외면당했다는 분석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자동차산업팀장은 현대·기아차가 능력을 과신하면서 해외공장을 단기간에 너무 많이 건설했다 “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단적인 리더십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몽구 회장은 29일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중이다. /이한선 기자 griffin@

TODAY FOCUS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여론 질타 받는 ‘먹거리 지킴이’

‘벨라민 파동’의 중심에 선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52)이 정치권 및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

윤 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지도부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윤 청장은 “한이한 검사태도부터 반성해야 한다” “중국에서 그렇게 낱을 때까지 정보도 없었다니 한심한 일”이라고 질타 당했다.

민주당 등 야권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출석시켜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윤 청장의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다면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 청장이 집중 도마위에 오른 이유는 식약청이 지난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환자가 사망했다는 언론보도에 “해당 중국 분유업체 제품은 수입된 적 없다”고 자신했고, 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난 16일 대만의 음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멜라민 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홍콩에서는 이번 멜라민 파동에 대해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있었고, 최근 일본에서는 공업용 쌀 유통으로 농림장관(농림수산상)이 경질됐다. /윤경숙 생활경제 전문기자 sky@

연간 750만톤 30년간 리 천연가스 도입 합의

한-러 정상회담 ‘전략적협력동반자 격상’ 공동성명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모스크바의 크렘린 대공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을 1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4면>

양 정상은 또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및 북한 경우 가스배관 설치 공동 연구, 서감차가 해상광구 개발, 한국의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을 포함한 우주분야 협력 확대 등 에너지·자원·경제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가 이처럼 격상됨에 따라 그동안 중심이 돼 온 경제분야 뿐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친 실질 협력이 확대되게 된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스프롬을 통해 이르면 향후 15년 내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양국 정상간 긴밀한 교류 지속 △첨단기술분야와 극지연구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한국의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을 비롯한 양국간 우주분야 협력 확대 △문화·학술·청소년·체육 분야 교류 확대 △러시아의 국제우라늄농축센터 구상에 대한 협력 모색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 추진 △극지기구 및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강화 및 공동 대처 등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요청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한편 양 정상은 단기복수사증협정, 광물자원협력협정, 가스공급양해각서, 금융협력 계약 등 2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진 기자

與, 중부세 ‘先 수용 後 보완’ 매듭

한나라당은 29일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정부의 중부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의 논란에 매듭을 지었다. <관련기사 6면>

한나라당은 이날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에 대한 ‘선(先) 수용-후(後) 보완’, 즉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수정하지 않되,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이를 심사,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선 수용, 후 보완’의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날 최고위는 논란없이 20분만에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오늘 최고위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임해 준대로 당론을 결정했다”며 “결정 내용은 ‘정부 원안 수용 후 보완’이다”고 밝혔다.

이윤리 홍 원내대표가 이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김성식 의원이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적극 호응, 중부세 논란 재점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류승연 기자 scalequeen@

외환시장 패닉 ... 달러링글의 하루 8면